

2018년 11월 23일, 제주시 이호1동 이호동마을회관, 이효순 조사.

박상주(남, 1934년생, 제주시 이호1동)

- 제주시 이호1동에서 태어나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 줄거리: 마을에서 상이 나서 청년들과 함께 상여를 메고 장사를 치른 후, 상여꾼들이 모여 술을 마셨다. 동네 어른들이 도깨비동산을 내려오다가 술에 취한 청년들끼리 서로 도깨비로 보여서 돌을 던지면서 모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청년들을 구해주었다.

[제보자] 재미진 이야기인디 선대 어른들이 있어. 첫째 장사가 나민 영장이나 무신 거가 나민 지금은 장의사에서 말앙 헛인디 그 당시에는 못헛어. 청년들을 일러 세와서 산에까지 가고.

[조사자] 상여 메영?

[제보자] 응. 상여 메영. 봉분 닦으민 한 달 그디서 살당 내려갔다고. 그런 과정인데 또 하루는 동네 어른들이 서부락 어른들 몇 사람인데 가서 이제 모 할머니가 돌아가니까 할머니 모셔 가서 잘 모셨단 말이야. 모셔 두고 거기서 좀 잘 사는 어른이 돌아가니까 술을 가져강 상디꾼들을 싹피 멕인 거라. 따로 돈 드릴 수 없고 그 술 드렸인디. 술 드린 사람이 고딱고딱 먹당 보난 넘어 불언.

그디서 제일 나이 먹은 분들은 두 말 싹거그네 집에까지 싹거 왔는데, 젊은 사람들은 으싸 노래 부르고 오곡 그랬는데 도체비 만난 거라. 우리말로 헛게지.

헛게를 만나서 친구들끼리 오다가 자기들끼리 싸워 분 거. 자기 친구인지도 모르고 정신도 막 허난 지들끼리 돌멩이로 치고 박고 어느 사람 때리고 헛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 죽었저.' 이제 일 나그네 동네 어른들이 올라가 보니 몬딱 쓰러젓어. 게난 도깨비동산에 도깨비 잘 나는 동산.

그때는 지나가는데 청년들이 술 막 먹어 부니까 도깨비들이 구신 붙어 불언. 지들끼리 막 박으멍 싸와 불언.

[조사자] 그달 도깨비동산이렌 허고마씨?

[제보자] 도깨비동산이렌 허영. 동산서 내려오지 못허영 돌맹이질 허명 죽엿덴 허명 지들 끼리 지들끼리. 동네 사람들끼리. 도깨비 맞춘다 해서 맞추는 거라.

[조사자] 도깨비로 보였구나예?

[제보자] 도깨비로 보연. 경허영 몬딱 신경 오고 막 업영 가명 들어보니 술 먹영 오논디 도깨비동산으로 내려오당 보난 어떤 도깨비가 막 돌아오난 나도 돌 들렁 맞춘 것이 우리끼리 막 맞춰진 거라. 도깨빈 없고. 그것이 바로 동산에 잇엇던 거라. 그분들이 지금도 다 돌아갓주마는 돌맹이 싸와났어. 무사 엇어. 도깨비가 낫인다. 그 사람도 도깨비로 뺑 싸와 불곡.

- 핵심어: 장사, 상디꾼(상여꾼), 도깨비, 도깨비동산, 술, 헛계(귀신), 돌맹이